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제4대 총여학생회

cool-energy@hanmail.net
전화 2123-3645(구내 3645)

떡볶이 수다

4 2002
APRIL



interview

페미니스트 나 윤 경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이달의 이야기 **“여대생”**... 무지개와 백설기

내 발로 걸어나온 존재이고 싶다

연애 권하는 대학

여성주의로 영화 읽기 여성영화제를 다녀와서...

낯선 곳에서... 시계방향으로 도는 나라

다다의 “니가 성폭력을 알아?”

여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요즘 세상, 취업하기 힘들다

7만원 여행기

여자친구와의 여행, 그 소중한 기억



떡볶이 수다

- 2 a letter from the editor
- 4 **여담의 여담 "여 대 생"**
- 들어가는 글
- 1학년이 본 '여대생' 무지개와 백설기 최수연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부 03)
- 2학년이 본 '여대생' 내 발로 걸어나온 존재이고 싶다. 이상미 (영아영문학과 08)
- 4학년이 본 '여대생' 연애권하는 대학 김정희원 (인문학부 99)
- 13 **interview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 나운경 교수편
- 20 **여성주의로 영화 읽기** 여성영화제를 다녀와서 평가 (투입출 편집위원)
- 25 **[광고] 취업대란**
- 26 **낮선 곳에서...** 시계방향으로 도는 나라 이지은 (국어국문학과 00)
- 31 **여선배가 들려주는 여담**
요즘 세상, 취업하기 힘들다.
여성으로서 취업하기는 더욱더 힘들다. 백천 (현재 경기도 사립대학교 근무)
- 35 **7만원 여행기** 여자친구와의 여행, 그 소중한 기억 이갈 (사회과학계열 99)
- 40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반성폭력 다다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 43 **[광고] 독자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 44 **이갈의 칼럼** 김이정민 (총학생회 부회장)
- 46 **독자투고**
- 47 **[광고] 총학생회의 에너지 팔팔 넘치는 홈페이지**





a letter from the editor



떡볶이수다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처음 만드는 잡지라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격려해주시고,
따끔하게 지적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만드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달다'고, 지난 호 테마였던 '마초'에 대해
좋은 의견 보내주신 것 경청하겠습니다. 이번 호 말미에 비평글을 실었습니다.
이번 호 테마는 '여대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라서 'XX여대'라는 이름을 단 학교에서보다는
여자 대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유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대생 이미지'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 의문도 듭니다.

얼마전 TV의 모 프로그램에 '김꽃님'이라는 여대생이 나와서
못남자 스타들의 애정(?)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김꽃님'이란 사람은 평소에는
털털하고, 좀 수다스럽기까지 하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TV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좀 달랐습니다.
이미지는 사회의 규정을 받습니다. 여자 대학생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어떠할까,
그것이 이번 잡지를 만드는 동안 우리가 던진 화두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 속에 그려진
'여대생'을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테마 글 이외에도 지난 여성영화제를 다녀 온 여학우들이 본 영화평과,
그야말로 배낭만 메고(떠나는 날 봤을 땐 그마저 텅텅 비어있던)
인도를 한달간 돌아본 여행기등,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실려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앞 떡볶이집 아줌마가 된 심정으로 많은 여학우들이
맘편히 수다떨 떡볶이를 만들고 싶군요...

“여대생”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학생이면 대학생이지 굳이 ‘여’자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

여대생 말고도 굳이 ‘여’자를 붙인 것은 많습니다. 여교수, 여류시인, 여군, 여고생, 여자비행사... 모두 다 같은 직업을 가진 것이라도 여성이 그 직업을 갖게 되면 굳이 ‘여’자를 씁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도 ‘xx 남자 고등학교’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다니는 학교는 ‘xx 여자 고등학교’를 꼭 붙이죠. 또한 남자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사람들이 갖고있는 일정한 선입견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에서 ‘xx 여대 애들은 어쩔다’라는 식의 이야기와 선입견들이 나타나고, 더구나 여성 문제를 얘기하는 상황에는 모 여대는 공격 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나, 직업들은 ‘남성’이 그 기준이자 표준 혹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그곳에 속하게 되면 ‘여’자를 붙이는 것이죠. 주류에서 ‘여’자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일탈적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번 딱북이 수다 4월호 테마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 ‘여대생’, 주변에서 주어지는 억압들을 얘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굳이 ‘여대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여대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칭으로써의 ‘여대생’은 그 이면에 많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학년 여대생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것, 2학년 여대생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것... 최근에 만난 4학년 ‘여대생’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더니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4학년 ‘남대생’에게는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네’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1학년이 본
“여대생”

무지개와 백설기

최수연 (이화여대 인문외국어문학부 02)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공학을 나왔다. 한 번도 완벽한 여자들만의 집단 속에 소속되어 본 적이 없었던 셈이다. 그래서 여대인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적지 않은 부담감 같은 것이 있었다. 여대생이라면 ‘웬지 ~ 해야 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나는 전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내 스스로도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선입견들의 실례는 내가 여대에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후, 주위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 속에서 찾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왕이면 공학을 가지 왜 여대를 가니? 얼마나 재미없는데?”로 시작해서 “여대 가면 시집은 잘 간다더

라” 심지어 “너 여대 가려면 좀 암전해 저야겠다. 그러다가 따된다.”에 이르기까지 입학도 하기 전에 나를 질리게 만들었던 무수한 선입견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막상 여대생으로 한 달을 보내는 동안 나는 그런 모든 시선들이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더듬기’ 식의 발상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나는 부적응자가 되어 우울증에 걸려 있을 테지만, 나는 현재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 중 하나로 한 달이 넘도록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그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 많은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모습들이었



미모의 여대생으로 변신한 전진

다. 잔디밭에 대자로 누워 잠을 자거나 공장 시간에 계단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대생들의 이미지는 아닐 테니까 말이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맘껏 표현하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은 내가 이제껏 보아 왔던 여학생-공학에 다니던 시절의 여학생들 혹은 나 자신-들의 모습보다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이었다. 누군가에게 의존한다거나, 암전을 떨다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기서 잠시 공학에 다니던 시절을 회상해 봐야 할 것 같다. 고등학교 때, 한 후배 여학생이 특별활동 부서로 축구부에 들어간 사실이 학

교 전체의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남학생들만 있었던 축구부에 여학생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한동안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반응들 속에는 "여자가 무슨 축구야"라고 말하던 여학생들의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에 한동안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여학생이기 때문에 주어졌던 많은 혜택-무거운 짐은 들어서는 안되고, 심한 체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식의-속에서 안주하는 많은 여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겉으로는 남녀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자라는 점을 내세워 의존하려 하고 피하려 하는 여학생들의 논리에 대해 불평하던 남자 동기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기억도 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나도 그런 여학생 중 한 명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나도 모르게 나를 '여성다움'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틀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상하게도 사회는 여성들만의 집단에 대해 유난히 더 민감한 시선을 보내는 것 같다. 과연 남성들만 모여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수한 억측과 '~카더라' 식의 낭설이 떠돌 수 있을지 궁금하다.

얼마 전 우리 학교에 '공주방'이라는 편의 시설이 생겼다.(지금은 공주방이 아닌 파우더 룸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조그만 방이다.) 그 시설이 처음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단순한 편의 시설(여학생 휴게실과 별 차이가 없는)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많았다. 각 신문에 기사거리로 오르는가 하면, 놀랍게도 9시 뉴스에까지 나왔다고 한다. '만약 남녀 공학인 학교에 여학생들을 위해 그러한 시설이 생겼다고 해도 그렇게 말들이 많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 같다.

여자들만의 집단이라고 해서 앞에 꼭 '여'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다른 시각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과거 남성들만의 집단이었던 사관학교 앞에는 '남'자가 붙지 않



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이화대학교'가 아닌 '이화여자대학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필요한 글자를 하나 앞에 더해야 한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여대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 색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참 많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만이라도 무지개떡을 백설기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학년이 본
"여대생"

내 발로 걸어나온 존재이고 싶다

이상미 (영양영문학과 전공 00)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내가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나를 합리화하곤 했다. '그걸 알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는거지...'라는 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투명한 미래를 앞에 두고 현실에 대해 어떤 의문도 갖지 못한 채, 주어진 것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 믿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한 적절한 '위로'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 때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시의 내가 어리석었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마치 지금의 나-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라 믿을 '대학' 입학 이후의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했는데, 이것은 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제외한 모든 상황을 외부적 이유로 할 때, 그에 따르면 '성공, 출세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등의 많이 들어본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비교적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등 그냥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있다. 이때, 여자도 공부를 잘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앞의 이유와 다르지 않지만 여기에 두드러지게 추가된 것이 있다면 '시집을 잘 가기 위해'일 것이다. 너무 흔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거나 그다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과 2년 전에, 나는 스스로를 신부감 1위가 되기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는 세

상의 무수한 유혹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경험에 있다.

주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으니, 나는 스스로에게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해야 했다. 물론 전에 '대학'에만 들어가면 그 '무엇인가'는 당연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했던 것은 이미 잊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은 맞다.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서 여자로 살아가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 놓은 대안이, 결국 '그러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리라. 결코 변하지 않을 현실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똑똑하지만 피곤한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작은 생각들로 채워진 나의 인식 속은 전보다 더 비좁아진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모습들-한 쪽에 강의 노트를 들고 어딘가 모르게 지적으로 보여야만 하는-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기에서 자꾸 나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한다는 관념에 갇힌 것도 같다. 언제쯤 나는 정말 '내가 하는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적어도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인 양 착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가 눈앞에 놓인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여대생들이 당면한 사회적, 실질적 문제라고 주장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나의 과제인 것이다.

요즘 나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일상의 순간을 찾아드는 위기감에 나도 모르게 놀랄 때가 있다. '어쩌면 세상의 유혹에 못 이긴 척 가르쳐 주는 길을 걷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이다. 어느 정도 '보장된' 길을 누군가가 정해놓고 이끌어줄 때,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대답은 간단하지 않으나 간단하다.

나는...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기보다 내 발로 걸어나온 존재이고 싶다. ♣





4학년이 본
"여대생"

연애 권하는 대학

김정화원 (인문학부 99학번)

우리는 때때로 대학은 의사표현과 행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판타지를 더욱 증폭시키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단어는 바로 '자유연애'이다.

연애는 철저하게 사적인 것이고, 나 자신의 순수한 욕구와 지향이 드러나는 실천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연애 파트너를 만나 함께 생활하고, 캠퍼스를 활보하고픈 소망을 갖고 있다. 이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또는 화장실의 낙서들(남친 갖고 싶다"는 불만 섞인 투정들) 속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얼마 전 같은 반 01학번 후배가 올해 02학번은 정말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아니

어떻게, 이번 02학번들은 반 CC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지금 벌써 4월이니까 이제 생길 때도 됐는데."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연애를 하는 중이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연애는 정말 나 자신의 순수한 의지와 소망으로 시작하게 되는 걸까? '이번 학기에는 나도 연애 한 번 해보자'는 여대생들의 다짐은 어떤 욕망에서, 혹은 어떤 억압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나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올해부터 주위에서 남자친구 안 사귀냐는 메시지가 담긴 유언의 혹은 무언의 압력이 더욱 심해졌다. (물론 이런 압력은 대학 입학과 함께 시작하여 끈질기게 지속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벚꽃이 그렇게 활짝 피었다는데, 같이 꽃구경 갈 남자친구도 없나?"

"졸업할 때도 되었는데, 차차 결혼준비도 해야지. 미리미리 짬 해놓아야 한다니까."

"뭐? 남자친구 없어도 괜찮다구? 야, 그건 지금 얘기지... 나중에 너 나이 먹었을 때 지금 같이 놀아주는 남자들 하나하나 떠나면, 넌 그때 누구랑 놀래?"

이런 억압에는 부모님도 가세하신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빠 친구 아들이 장가간단다. 아빠는 언제쯤 청첩장 돌릴까?"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최근에는 결혼 문제를 놓고 부모님과 의 충돌도 잦아졌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나의 주장 때문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신 부모님께서서는 기회가 날 때마다 연애와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서 역설하시곤 한다. 하지만 정작 지금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연애가 아니며, 나는 연애 강박도 거의 없는 편이다. 오히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학업과 커리어를 위한 준비, 그리고 단기 혹은 장기계획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애가 부차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행복하게 연애하시는 분들, 오해없으시길.)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꼭' 하는 연애를 나는 '왜' 하지 않는지를 궁금해한다. 졸업을 앞둔 여대생에게 장래를 약속한 남자친구 하나는 필수조건인가? 이러한 연애 압력 속에서 나의 진정한 삶과 욕망은 사라져버린다. 남성과의 멋진 로맨스를 상상하지 않는 여성의 존재를 왜 인정하지 못하는가?

많은 여대생들이 연애강박에 시달리며, 나는 왜 연애를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에 빠진다. 물론 연애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정말로 동등한 유대감과 친밀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연애를 갈망하는 지에 대한 성찰은 뒤로 미룬 채, 멋진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대생 이미지에 열매여서, 혹은 주위의 연애압력에 세뇌되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의 폭을 좁히지는 말자.

대학이라는 공간의 자유연애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이성애중심적이고 남성중속적인 사랑 이데올로기를 확고하게 재생산하고 있다. (실제로 연애관계에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교환은 평등하지 않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적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학생들의 연애문화는 (그것이 진정으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는 담론 속에서 억압적 권력의 속성은 사라진 채) 획일화된 사랑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학기'의 반을 보낸 지금,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인가? 난 나의 삶을

내 식대로 살고 싶다. 연애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것이고, 내가 졸업을 하고 나이를 먹어도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둬. ♡



interview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유쾌한 Girl이 만나 본 두 번째 신나는 女子

페미니스트 나 윤 경

1988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의
Department of Continuing and Vocational Education에서
석사 과정이수, 박사 과정이수
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
배움 닷 컴 (www.baecom.com)에
10대들을 위한 사이트 "꼬마 페미니스트"와
여대니들을 위한 사이트 "딸 제대로 키우기"에
칼럼을 연재 중



관련된 문제라면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따뜻한 밥 지어 주시고, 빨래에 다림질까지 해 두신 옷 입고 나가는 것에 익숙해 있는, 혹은 그런 그림을 알게 모르게 뱉속 깊이 각인 시켜 둔 한국 남자들이 적지는 않을 테니, 적어도 여자 입에서 나온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 남득이 갈 만 하다.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그 그림 탓에 어느 날은 남편이 이런 말도 하더라. "글쎄, 평등하게 일 나눠서 해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나도 다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싫지?" 이것 참... 더 할말이 없다.

어유, 어머니, 어머니는 뭐 그러세요, 촌스럽게.. 응?

예쁜 게 여자의 첫 번째 경쟁력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서른 네 살의 공부 좀 했다하는 박사를 며느리로 삼기 두 팔 벌려 환영할 할머니가 몇이나 될까. 나윤경 교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지금의 시어머니이신 분의 반대가 꽤나 심했다고. 이런 많은 경우에 가장 있을 법한 광경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 가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하는 장면이겠지만, 그녀의 대응은 한 마디로 'Cool' 했다. "남편이 어머니 맘에 속 드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당신 아들 꼬셨다 뭐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셨나 봐, 근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덜 흉구나 하신 거지.. 덤덤하고 드라이하고, 시어머니 반대에 조마조마하고 한 게 아니라 싫으면 안 보고 말지 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성 차별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 하실 때마다 오히려 내 눈치 보시고.. 하하" '어유, 어머니 뭐, 그러세요.' 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녀의 말은 실제로 그녀 가정의 많은 것을 바꿔 놓고 있는 듯 했다.

결혼한 지 3년 반, 이제는 좀 알겠어, 어떻게 얘기해야 먹이지.

일상적인 제스처 하나하나에 묻어 있는 가부장성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는 나윤경 교수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말하는 '방법'의 문제란다. "신경질이 아닌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어, 내 말에 힘을 싣고 싶었고" 정치적으로 말을 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출하기만 하면 싸움이 되는 분노를 어떻게 문제 해결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적당히라도 정리하는데 나윤경 교수는 꼬박 3년이 걸렸다고 했다. "이제는 좀 돼, 예전에는 무슨 말만 했다하면 걸핏하면 싸움이 났었는데, 이제는 좀 알겠어, 그렇지만 아직도 과정이지.." 멀고도 험난한 성 평등의 길이어..



페미니스트? 유학 가기 전에 내가 그런 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잘 모르겠어.

어떤 이유로 "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을 결심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나윤경 교수의 대답은 정말이지 의외로, 아주 간단했다.

어느 학회에서 었다던가,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냥 간단히, "저는 페미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제 연구가.. 하는 한 마디에 좌중이 통째로 얼었다. 그녀의 고백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깜짝이 거북이 지나가듯 이루어졌다고, "뭐, 너무 순진해 가지고 그런 거지."

그 이후에 어떤 선배로부터는 용감하다는 말도 듣고, 학회 내에 내 Anti도 생겼다고 하고.. 하하, 그 한마디에 말이야. 제가 페미니스트거든요?!" 그 한 마디" 말로는 별 고민이 없었다지만, 그러한 선언 아닌 선언 이 있기 전후, 여성학을 공부하고, 여성 교육 개론을 가르치고 하는 그녀의 활동을 살펴 볼 때, 그녀의 "제가 페미니스트거든요?!"는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나온, 뭇 모르고 뱉어버린 말 한마디는 아닌 것 같았다.

내 교육 철학? 너희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Empowerment 야!!!

유학 시절, 그녀는 귀한 대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스승으로부터의 인격적인 대접과 지적 자극은 '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가슴으로 알게 했다고. "나는 허무 뿔랑하다고 생각한 나의 기획안을 보고도 그분이 '그럼 너라면 할 수 있지, 물론, 할 수 있고 말고' 그러시면 난 정말 할 수 있게 되더라고....." 실제 한국에 들어 와서 진행했던 첫 수업에서 자신의 강의에 자석처럼 끌려오는 많은 여학생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 본 경험이 있는 그녀의 기도는 그 날 이후, 변함없이 한결 같다. '정말로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지금의 20대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딱 한 마디야, 더 똑똑해져라, 더 치열해라!

지금의 20대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를 묻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답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기가 취하는 액션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도무지 치열하지가 못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보면 거의 없어 보여, 늘 얘기하듯이 세상은 지뢰밭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20

살이 지나서도 인생이 있고,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어도 자기 삶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고 무조건 예쁘게 꾸미고, 좋은 남자 만나서... 이런 생각하는 애들 보면 정말 가슴이 천근 만근이야" 요즘 20대 여성들의 성 이슈를 보는 보수성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된 나운경 교수의 답변은 "더 똑똑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세팅 안에 있는지.. 그리고 더 치열해져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하는 안쓰러움 가득 담긴 한숨으로 끝났다. 그리고 20대 여성을 향한 그녀의 애정 어린 당부를 전해 들으면서 그녀와의 짧은 만남도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가르치는 일이 너무 즐거워 서른의 나이에 유학을 결심하고 선생이 되었다는 그녀, 해 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숨이 차도록 말을 빨리 하는 그녀, 일상의 정치화를 실천하며 오늘도 남편과의 타협을 쉬지 않는 그녀, 그 어떤 갑갑한 순간도 "어머니, 뭐 그러세요?"의 배짱으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녀..

여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 0순위가 되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그녀는, 오늘도 여전히 바.쁘.다.!

by 유쾌한Girl

●●●●●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 모임 '유쾌한Girl'은 고정 인터뷰 코너<유쾌한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를 통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는 여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입니다. 유쾌한Girl들이 만나는 사람들, 유쾌한Girl들의 눈으로 바라 본 세상, 유쾌한Girl들이 유쾌하게 풀어내는 얘기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가리타 해피아워

평가 (두입술 편집위원)



그리고 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이제 화려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더라도,
나의 해피아워를 함께 할 친구들은 있겠지?
그러다 수몰리면 함께 떠나기도 하고 말이다.
그렇게 나를 놓치지 않고
나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의 이모 역시 그럴 수 있기를...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단가. 엄마는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단가.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나의 과거가 내게 낯설어지지 않을까.

'3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못 알아볼지도 몰라.'

아이를 데리고 늦은 오후 멕시코 식당에 모인 다섯 여자. 마가리타를 반값으로 마실 수 있는 해피 아워에 모여 일상의 수다를 어지럽게 늘어놓는 그녀들. 그녀들은 영락없는 아줌마들이다. 그런 그녀들의 모습은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던 모습이다. 성에 대한 질편한 수다들, 아이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들, 테이블 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반값인 마가리타만 고집하는 엄마들. 하지만 그 시간은 유쾌하다. 적어도 그녀들이 해피아워를 마치고 돌아갈 집에 비하면.

해피아워가 끝난 후 돌아가게 되는 집은 고단하다. 일곱 명의 친구와 공유하는 켈라의 집이 파티로 흥청대는 그 순간, 그녀는 생계를 위해 포르노 잡지에 큰 가슴과 작은 엉덩이를 가진 여성의 모습을 담은 만화를 그리며 청얼대는 아이를 재워야 한다. 아이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즐기던 삶과 일



마간 떨어져 살고 있다. 흥겨운 파티도, 애인과 데이트도, 예술제도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녀의 것이 아니다.

엄마. 여성.

내가 어린 시절, 엄마가 어떻게 살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이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겪었을 힘든 시간들을 짐작할 뿐이다. 집에 혼자 두고 나가기에는 너무 어린 사촌동생 때문에 이모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게 힘들어 그 좋아하던 스키장에도 가지 못하던 아쉬움. 보고 싶은 영화들도 비디오 나온 뒤로 미루고, 공연장 앞까지 갔다가 청얼대는 아이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



여성영화제를 다녀와서

마가리타 해피아워



는, 그녀는 고단한 엄마이다. 작고 예쁜 가방 대신 커다랗고 투박한 가방 속에는 파워레인저 파워의 로봇이 가득하다. 애 데리고 다니려면 작은 가방 못 들어. 엄마인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그녀보다 옆에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취향들, 관계들, 삶 그 자체가 엄마가 되는 순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엄마로서의 그녀는 아이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이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 엄마.

그녀들의 해피아워

'마가리타 해피아워'는 그렇게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그녀들은 불행하거나 궁상스럽지만은 않다. 그녀들의 삶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공감에 기반해 그려지고 있다. 그녀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와 이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다. '해피아워'에 함께 마가리타를 마실 친구들. 그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만큼은 그녀의 것이다.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아이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와 성적 욕망을 가진 여성의 이야기가 함께 오고갈 수 있는 해피아워. 그 시간을 함께 하는 친구들은 그녀의 삶에 소중한 자원이다. 서로에게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엄마로서, 또 여성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그녀들이 있기에, 가벼운 주머니에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마가리타만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해



피아워는 즐거운 시간이다. 그녀들이 뉴욕을 떠나기 전까지 해피아워는 계속 된다.

매일전화하는 여중마

사촌동생을 유치원에 보내고 이모부도 출근하고 나면, 이모는 전화를 하곤 했다. 그 전화는 먼저 걸려오기도 하고 이모가 걸기도 하는 전화이다. 대상은 언제나 비슷하고, 대화 역시 특별할 것은 없다. 전화통화를 하는 그녀는 즐겁다. 친구들 소식도 듣고, 요즘 물가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조용한 집안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나누는 전화통화는 그녀의 '해피아워'였다. 그렇게 매일 전화통화를 하던 친구가 얼마 전 이민을 갔을 때 그녀는 무척이나 우울해 보였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우울한 표정을 짓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개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녀에게 그 친구는 삶의 일부였다. 그녀가 빠진 삶을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녀의 마지막 해피아워는 인천 공항에서 친구를 배웅하며 끝났다.

해피아워. 그리고 그후

그녀들의 해피아워는 그렇게 끝났지만, 대신 그녀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들은 함께 떠났고 넓은 '공간'이 있는 시골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살



마가리타 해피아워



것이다. 그녀들은 서로를 돌보고 삶을 지켜주며 끝나는 시간
간이 있는 해피 아워 대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지도
모른다. 그 공동체에서 그녀들은 엄마로서의 정체성
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둘다 포기하지 않은 채 살
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녀들은 모두 엄마인 여성들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모의 해피아워는 그렇게 끝났고 그녀는 얼마간
외로울 것이다. 그녀가 새로운 해피아워를 만들어갈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 그녀와 함께 이 영화를 보았다면 어땠을
까. 그녀를 찾아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그녀에게는 어
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아주 화려한 미래가 나를 기
다리고 있지는 않더라도, 나와 해피아워를 함께 할 친구들은
있겠지? 그러다 수를리면 함께 떠나기도 하고 말이다. 그렇
게 나를 놓치지 않고 나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의 이모 역시 그럴 수 있기를... ♡



널리알림



취업대란 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요구되는 불평등과 그 해결법
을 우리는 나누려고 해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지레 포기하는 자세나, 너무나 순진하게 미래를 향해 꿈의 나라를 떠는 자세가 충분치
않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 자격증을 따는 것만큼, 900을 넘는 TOEIC점수를 위해 노력하
는 것만큼, 동시에 세상이 어떠한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선배들로부터
듣는 그녀들의 삶의 이야기, 그 많은 문제와 해결의 이야기, 그리고 경험과 살아남기의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없이 훌륭한 준비가 될거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와 희망의 목
소리로 우리의 미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해 보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부
딛칠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 행사는 예방주사처럼 연세의 여학우들을 준비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눔의 자리가 될거예요~~ 모두 오셔서 많이들 얻어가세요~~

날짜	행 사	장 소
5.2 화 저녁 6시	밥·꽃·양 상영 & 감독과의 대화	연세대학교 (장소 미정)
5.6 월 상설행사로 기획	〈구조물 설치〉 _ 대학의 여학우의 모습과 사회인으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구조물 〈적성검사 실시〉 _ 여학생처의 지원을 받아 취업대란행사주 내내 진행	학생 회관 앞 혹은 민주과장
5.7 화 저녁 6시	〈강연회〉 주제: 문화 영역에서 여성의 자리 잡기 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좋은 학점과 자격증 이외에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인드는 무엇인가.	연세대학교 (강의실은 미정)
5.8 수 저녁 7시	〈1부 - 토크쇼〉 여선배 4명을 초대해 그들이 사회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물어내면 서 불평등을 알아가고, 가볍게 웃으며 견어차 주는 법을 배우자~~ 〈2부 - 선배와 만나는 시간〉 토크쇼의 여선배 4명은 전공이나 일하는 분야별로 다양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선배들과 함께 소모임을 구성하고, 취업준비 노하우 배우기, 얘기하고 나 눔으로써 취업대란을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자~~	연세대학교 (강의실은 미정)



세계방향으로 는 나라



이지은 (중앙대학교 학생) 00

인도에는 왜 갔느냐는 말에, “누구하나 나를 나무라는 사람도 없지만 심심하지는 말아라고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구경만 해보라기에 쫓고려 앉으면 한 보따리 짐을 다 풀어서 눈물 썩 빼게 만들지만 꼭 덤으로 하나 얹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면, 다들 그건 다녀와서의 생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 마담! 마담! 하며 따라붙는 성가신 사람도, 값싼 반지 하나에 달려온 나무 목걸이도 다녀온 후에 생긴 것들이다. 그러면..... 아마 6월 언제 집어든 인도 여행기 덕분에, 친구한테 휴학 이유를 댄다는 것이 인도였다. 말라리아 예방 접종은 했느냐기에 안심시키지는 못하고, 그깟 것이 무슨 대수냐며 원망 섞인 대답을 했던 것도 같다.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기를, 내가 꼭 가야할 필요성은 없었고, 언제라도 개강 전 한 달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그저 주위에서 며칠 안 남았구나 하니까 배낭을 챙겼고, 잘 다녀와라 하니까 공항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밤 11시에 인도 공항에 도착해서는 내가 뜬금 없는 곳에 내던져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 수 없다. 알싸한 냄새에 현기증이 나도 걸어 들어가야지. 그런데 결단하는 자에게 새로운 세계가 조용히 다가올 거라고 누가 그랬었나. 전혀 낯선 그 곳은 진즉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첫날부터 정신없고 시끄럽게, 그리고 이렇게 뻘뻘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공항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6시쯤 시가지로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까무르라는 사람이 자신을 택시 기사라며 말을 건네 오길래 메인 바자로 갈 거라며 택시비를 흥정했다. 길거리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원숭이들만 간혹 뛰어나오곤 하는 것이 좀 이국적이다. 그렇게 잠시 눈을 팔고 있

는데 가다가 대뜸 멈춰서는 것이다. 누가 봐도 시장통이 아닌데 말이다. 마담 하면서 서서히 수작을 걸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 거라는 계획도 전혀 없는데 오자마자 다음 도시로 갈 티켓을 끊고 안내서를 받아보라는 거다. 공항에서 내가 가려던 숙소 근처까지 250루피는 족히 달라고 할 거라는데 기어이 100루피만 내야한다고 공항에서 7시간 내내 마음을 다지기까지 했던 내가 첫 걸음부터 택시와 일반 차를 못 알아보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덕분에 까무르와 그 옆에 앉아 있던 남자와 30분을 옥신각신하고는 다 필요없다면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으니 여행사 직원이 와서 차라도 타고 가라고 붙잡았다. 보이는 거라곤 뾰족 마른 시커먼 개박에 있는 곳에서 이게 뭔가 하고 있던 차에 못 이기는 척 올라탔다. 거기서 끝낼거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했다는 듯이 여기저기 알 수 없는 호텔로 끌고 갔다. 절대 메인바자로 갈거라고 우겼고 이번에도 내가 이겼지. 처음에 약속했던 100루피를 주니까 에어컨 틀었다면서 더 달란다. 얼마나 우습던지 추워서 감기를 뵈 했더니



“ok, nice journey” 하면서 악수를 청하더라. 그 마지막 한 마디로 혼자 아주 부끄러워해야 했던 신고식을 그렇게 마쳤다.

텔리에 머무르면서 영화관에 간 적이 있다. 밤에 TV에서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영화 그 내용에 대한 기대는 아예 없었다. 사랑 애기에 나름대로 감정을 잡고 있으면 느닷없이 뛰어 나오는 초원의 고지대와 여러 무희(?)들이 간신히 이어놓은 스토리를 사정없이 뭉개버렸고, 그 내용은 머리를 태워 죽이는 등 다소 엽기적이기까지 했으니까. 단

지 열차 폭탄 테러로 끊긴 카슈미르 가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사흘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내는 것이 무료했을 뿐이다. 몇몇 인도 사람들과 같이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좀 재밌는 충격이었다. 키스권이 나오면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는 사람, 뜻밖의 남녀가 엮어지는 것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이 야유를 보내는 사람, 게다가 한 영화관 관계자는 후레쉬를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는데 바쁘다. 인도 사람들은 삶이 아닌 것이 없다. 종교도 철학도 그리고 물론 치열한 돈벌이와 영화까지도 다 자기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영화관을 나오는데 이 나라는 거꾸로 도는가 싶다. 그러니 혼자

영화관에 가면 사람들 머리가 신경이라도 쓰일까봐 앞자리에 앉아서 보곤 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나라에서 온 내가 이렇게 어지러운 수밖에.....

배낭을 꾸리면서 엄마한테 인도에 가겠다고 했다. 별 말씀 없으시더니 왜 하필 거기냐고 하신다. 설마 거지만 있겠냐면서 웃었는데 아닌게 아니라 정말 많은걸.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른은 구걸을 하지 않는다. 꼬마들이 1살도 안돼 보이는 애들을 보듬고 다니면서 도로든 어디든 외국인이 보이기만 하면 달려드는 것이다. 처음엔 괜히 안쓰러워했는데, 카슈미르 어디 정원쯤에서 만난 꼬마는 아

니었다. 처음 보는 2루피 짜리 지폐를 줬더니 대뜸 화를 내는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갈 길 가고 있는데 계속 따라붙으면서 그쪽 말로 뭐라고 한다. 너무 조금이어서 그런 줄 알고 동전을 하나 더 줬더니 그래도 화를 냈다. 나중에 같이 갔던 친구가 와서 간신히 쫓아냈는데 물어보니깐 찢어진 거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돈 뭉치는 스테이플러로 박아 구멍을 내면서도 찢어진 돈은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당함에 할 말을 잃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여행자가 겪는 일이란단. 단순히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전혀 궁색하지 않은 것이 인도의 꼬마 거지들이라고.

여행 일정의 절반 정도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음식 때문에 오는 향수(?)가 아니고서는 쉽게 적응을 했던 터라 나름대로 편하게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른 시간의 버스 여행길 끝에 몸이 축났던 배를 빼고는 맘고생으로 물어본 적도 없는데, 카슈미르에서 돌아오던 길에 차창 밖으로 잠



깐 봤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황해진다.

저녁 무렵이라 노을이 들어서 너무 황홀했던 저쪽의 회고 둥근 건물 지붕을 내다보고 있는데, 차가 멈추어 서자 많은 노점 상인들이 차 가까이 달려들었다. 딱딱해 보이는, 까맣게 구운 옥수수를 손에 들고 댄 발로 뛰어오는 할아버지가 그 가운데 묻혀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소리로 그저 인도 사람들은 적어

백선 (인문학부 97 / 연세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근무)

“요즘 세상, 취업하기 힘들다. 여성으로서 취업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흔히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 주위를 살펴보면 취업한 사람들도 많다. 올해는 취업이 쉽네 어렵네 해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력저력 직장을 찾게 마련이다. 미리부터 기죽고 겁먹을 것은 없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감을 갖자. 아무렴! 내가 남들보다 못할게 뭔가 말이다. 나는 비록 학교에 불만이 많지만 남들은 나를 Y대 출신이라고 부러워한다. (하.하.하.)

이력저력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지가 일년 가까이 되었다. 나는 아직도 남들이, 특히 어른들이 나를 두고 직장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 (물론 후

“요즘 세상, 취업하기 힘들다. 여성으로서 취업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배들이 ‘커리어 우먼 같아요!’ 라는 것도 어색하다.)

나는 아직도 마냥 어린애만 같은데 어느새 한 사람의 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버렸다. 게다가 댁수에서 이런 글도 써달라고 하고, 솔직히 나는 취업을 어렵게 한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취업원서도 여러 번 써 봤고 (면접은 한 번밖에 보질 못했다.

서류전형은 역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취업설명회며 쫓아 다니기도 많이 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현재의 직장에 취직하게 된 것은 성적이 좋거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다구나게 잘 써서라기 보다는 학교다니면서 가리지 않고 하던 아르바이트 덕분에라는 게 맞다. 그렇다고 후배들에게 공부보다 우선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공부는 정말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부끄럽지만 나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좋았다.

이런 것도 적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덕분에 성적이 좋질

도 정신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들 생활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 환상으로 지어낸 말은 아닐텐데 어쩔 저렇게도 이율배반적인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여타의 것에는 모두 노프라블럼이면서 하루 세끼 커리어는 그럴 수 없는 이유. 거기서 나는 비로소 이해한 것 같다. 그래, 무슨 일이든 가볍고 싶고 또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이 모두 가볍지만은 않으니까. 느긋함도 명상도, 밥 한 끼를 위한 치열한 눈물 없는 아무것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만 혹시 아는 것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여행 전에는 그 흔한 인터넷 정보도 뒤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녀와서는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 가끔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 또 갈지에 대한 질문을 늘 들었다. 지금도 내가 인도의 여러 것 중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다. 한두달 잠깐 일을 할 수 있다면 여행비용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갈 수 있는 것이다. 일단은 먹고 자는 것이 비싸지 않으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인도라는 나라가 소중한 것들을 모두 길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름난 곳들 찾아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 자꾸 말을 시켜오는 사람들이 거리에 있으니까. 버스로 갈 때와 올 때의 네시간의 차이, 흰 셔츠를 하늘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파란 비누, 한 시간 동안 만들어져서 나오는 김치. 우리가 겪을 이런 황당함을 알고 그들이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





여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않아 가끔 후회를 한다. 자주는 아니다. 그저 가끔.) 그러나 만약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졸업 후 취업을 할 생각이라면, 소득은 좀 낮겠지만 개인과외 대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어떤 특정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면, 해당 분야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part time job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직원이 되는 것보다 몇 배쯤 쉽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아르바이트 주제에 대단한 일을 하게 되리라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말 것. 일 자체는 단순업무이거나 원하는 직종과 다르더라도 그 업계의 분위기,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익혀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졸업 후 그 분야로 진출한다면 좋은 경력이 되어 줄 것이며, 열심히 일했다면 두고두고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학생들이 취업이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적극성이 부족해

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본다. 가끔 졸업 앞둔 후배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주려고 이력서 써둔 것이 있나 물으면 '이력서 한 번도 써 본 적 없어요' 하는 경우가 많다. 졸업 후 취업을 할 생각이라면, 4학년이 되면서부터 이력서를 써두는 것이 좋다.

'준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회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잡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력서를 써 봐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

아마 대부분은 처음 이력서를 쓰면서 내가 정말 내세울 것이 없구나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했으니 이제 목표가 생기지 않았는가. 영어점수가 없다면 영어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이 없다면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이라도 만든다. 이것이 취업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졸업을 목전에 두고서야 처음으로 이력서 용지를 앞에 두고 앉아있다면, 암담할 것이다. 시간은 없고, 빈칸은 많고. (그러나 우리 아직 젊으니 벌써부터 낙담하지는 말자.)

이력서를 쓸 때만큼은 검손을 버려야 한다. 뭐든지 적는다. 지나간 일기장, 수첩, 다 꺼내서 기억을 되살려 본다. 내가 대학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작

“요즘 세상, 취업하기 힘들다. 여성으로서 취업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은 수상경력 하나, 잠시나마 참여했던 동아리, 별 것 아니라 생각되는 자격증.....수영대회 입상한 것도, 합창대회 참가했던 일도, 특히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적어본다. 그리고? 근사하게 수식해서 그럴 듯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회장이었던 동아리에 회원이 세 명밖에 없던 것, 심사위원들은 모른다. (그렇다고 전혀 없던 일을 만들어 내진 마세요.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이력서란, 어찌 보면 나를 상품으로 내놓는 광고문이다. 목적은 나를 파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눈이 가게, 마음이 끌리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이력서용 사진도 미리 찍어둔다.

입사하고 나서 이력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따질 사람 별로 없다. 웃어넘기면 그만이다. 부담스럽게 예뻐 필요도 없다. 자연스럽고 '일 잘하게' 생긴 이미지의 사진으로 넉넉히 준비해둔다. 요즘은 온라인 접수하는 곳도 많아서 증명사진을 미리 스캔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증명사진 찍어주는 곳을 찾으면 포토샵으로 예쁘게 보정도 해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탓에, 졸업 후 명확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다. 그 친구가 정말 그 길로 갔거나 아니거나와 관계없이. 만약 '난 이거' 라고 정해 놓은 직장이라면 이미 한 걸음 앞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 보라고 권한다. 그 선배가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좋지만, 아니라면 친구의 친구의 언니의 친구의 동생 하는 식이라도 소개를 받아도 좋다. 하고 싶은 일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기업정보나 취업정보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교의 취업정보 사이트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취업공고도 눈여겨 보아두는 것이 좋다. 하루이틀 보아서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해 버리지 말자. 사흘째 나흘째에 정말 마음에 드는 취업공고가 올라올지도 모른다. 각종 취업사이트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지만, 조건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고를 낸 기업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구하는 직무가 나에게 적당한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학과사무실이나

여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과의 취업정보 게시판도 자주 둘러본다. 많지는 않지만 나의 전공과 관계있는 취업공고를 접하기 쉬운 곳이다. 구하고 찾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여자라서', '워낙에 어려우니까' 지레 짐작하고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떡볶이 수다를 펼쳐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취업하고 나서의 일이다.

여러분, 직장다니면서 힘들다고 남자 친구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기 바란다. 남자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숙제 해달라는 것으로 끝내라. (남자친구가 불쌍하지 않은가 말이다.) '에이, 설마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겠지만 많이 봐 왔다. '누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은 버려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기에 달렸다. (쓰음, 이거 조리팀에서 편집해 버리는거 아닐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조리팀 Re:우리는 그래도 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이 힘들거나 막히면 남자 동료가, 혹은 상사나 선배가 도와주리라 생각하는 여인들이 많은데, 시트콤이나 TV 드라마 등에서 그리는 잘못된 여성상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근사한 남자 동료나 선배가 아군하고 있는 여주인공을 몰래 도와주는 것은 극중의 얘기일 뿐, 실제로는 자기 일 다 하면서 남 일까지 도와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보다 못한 남자 직원들도 많다.

남이 한 일 내놓고 억울한 소리 듣는

니, 차라리 처음부터 힘든 일, 어려운 일 인정하고 배워나가길 바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극중에서처럼 여러분을 무조건 미워할 여자 상사도 흔치 않다. 여러분도 극중 여배우처럼 예쁘진 않지만, 여성이 능력의 면에서 남성에 비해 뒤처지거나 부족하지는 않지만, 적극성이나 끈기, 그리고 책임감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여자인데, 좀 봐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때로는 결혼하면 그만둘 것, 이라고 생각하고 대강 일하는 모습도 본다. 여성으로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싫다면, 여성이라고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아니, 남성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꾸준히 자기 발전에 힘써야 한다.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은 이력서를 써보라. 그리고 반성하라. 지난 일 년간 이력서에 한 줄도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 당신은 발전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학생 때 잠시동안 헤드헌팅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얻은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이다. 자격증 하나, 수상경력 하나, 이력하나 추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사실 얼마나 쉬울 수 있는지 직접 해보기 바란다. 미리 말하건대, 어디든 직장생활 쉬운 곳 하나도 없다. 흔한 말로, 남의 돈 먹는 게 쉽겠는가. 처음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내가 학교 땀 잘나갔는데..' 해봐야 본인 자존심만 상한다. 현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

7만원 여행기

여자친구와의 여행, 그 소중한 기억

이 갈 (사회과학계열 99)

이번학기까지의 떡볶이 수다에서는
이전에 다녀온 여행기를 실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여학우들이 직접 계획에 다녀오는
'7만원 여행기'가 나올것입니다.
많이 많이 신경써 주세요.

- 떡수 조리팀



중간 고사 기간, 아직 이르긴 하지만 조금씩 더워지는 날씨에 여름 방학을 가끔 떠올려 본다. 이번 방학에는 무엇을 할까... 대학생들의 방학 계획에 잊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다 소 낭만적 이미지의 배낭여행이다. 여행이라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어서 돈 없는 대학생들의 여행은 못먹고 못입고 못타고 다니는 여행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지금 만큼 흥분하게 떠날 수 있는 때가 없는 것 같다. 나 역시 언젠가부터 방학이면 빼놓지 않는 계획 중의 하나가 '마음이 맞는 친구와 여행 떠나기'이다. 다행히 나에게는 '갑히 여자 둘이서 여행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다.

나의 여행의 시작은 3년 전, 1학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 나는 대학에 와서 선배들과 동아리에 꼭 빠져 정신없이 시절을 보내던 '진정한 새내기'였다. 그러다보니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뜸했고, 늘 먼저 편지에 전화를 하면 고등 학교 친구들의 연락도 조금씩 그 시간간격이 커져가던 때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배낭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무심했던 나에 대한 질책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나에게 손을 내밀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여자들끼리 그것도 생초보끼리 떠나는 여행이 망설여지지 않



았냐고? 그래도 우리는 고등 학교 때 서태지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록 하루였지만 가출해서 서울행 버스를 타고 새벽녘에 집에 들어가기도 한 용기만땅 소녀 시절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고치기를 좋아하는 나와 친구는 그 사건(?)을 함께 기억해 내었는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도 여행을 계획했다. 착오도 많았고(동백꽃이 가장 먼저 편다고 하여 오동도에 갔더니 아직 봉오리만 맺혀 있어 상상만 실컷 했고, 일출이 아름답다던 향일함은 늦잠으로 오전 10시에나 올라갔다.) 무모하기도 했지만(눈 덮인 지리산을 운동화 두짝으로 올라가 많은 등산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경험은 무척 소중한 것이었다. 그 여행을 통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여행을 to be continued로 가져갈 수 있었다.

여행을 가면 꼭 싸우게 된다는 데 나와 친구는 그런 점에서는 죽이 잘 맞는 편이다. 여행에서 싸우게 되는 건 서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좋을대로 행동하고 그걸 인정해주면 부딪힐 일도 크게 없다. 모든 것을 친구와 같이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자가 가진 여행 방식을 존중해주면서 같이 산책나가지 않는다고 빠지거나 기념품을 같이 안 산다고 섭섭해하지 않으면 된다. 여행 왔으면 혼자서 호젓하게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여행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키우게 만

들어 준다.

눈덮인 지리산을 운동화 두짝으로 올랐던 무모한 여행을 떠올리며, 그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작년 여름 제주도 4박 5일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꽤나 길게 떠나는 여행이기도 하고 여름 방학은 제주도 여행 성수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했다. 정말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실제 여행 시간보다 3배 정도는 길었던 것 같다. 인터넷 사이트도 뒤지고 아는 사람에게 도움도 받고 등등 꼼꼼하게 봐두어야 할 것들이 무척 많았지만 패키지로 휘리릭 떠나는 여행은 별 재미도 없어 보여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여행을 선택했다. 원래 일주일 자전거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내가 자전거를 못 탄다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로 포기해야만 했고 버스와 도보로 제주도를 일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제주도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덧붙이면 자전거 여행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나도 다니면서 자전거 여행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엄청난 체력을 요하고 위험하기도 해서(여름이면 더위 조심도 해야한다) 처음 떠나는 여행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도 막상 자전거 행렬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타고 오길 다행이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했다. 대신 우리처럼 도보로 여행을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 걷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각 관광지마다 버스가 서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야할 일이 아주 많다. 한 명이



라고 툭툭거리기 시작하면 지치고 힘빠지고 끝이기 때문에 미리 조절을 잘 해야한다.

도착한 첫째날은 공항에서 가까운 한림공원을 한 바퀴 돌고 바로 숙소로 향했다. 첫째 날인만큼 약간 돈을 써서라도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곳에서 묵자는 생각이었는데, 참 운 좋게도 바닷가에 조용히 서있는 카페를 발견했다. '페르마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곳은 서울에 살던 주인아저씨 두 분이 내려가서 경영하는 곳이었는데 카페 위층을 민박으로 만들어 대여하고 있었다. 공간 전체를 하루에 한 팀에게만 내주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아주 편하게 쉬 수 있는 곳이었다. 아침에 등대까지 산책을 하고 돌아와 공짜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창 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기분은 지금도 입가에 웃음이 돌게 만든다. 빨간 우체통과 파란 유리 창살 문이 기억나는 페르마타를 뒤로 하고 둘째 날 여행을 시작했다.

둘째날은 다리품을 엄청나게 팔면서 제주도 해안을 돌고 쉬리 언덕이 있다는 중문 관광단지까지 지났다. 쉬리 언덕 보러 갔다가 호텔들과 신혼 여행은 부부들만 실컷 보기는 했지만... 역시 관광 단지로 묶인 곳은 갈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줬다. 이번 여행은 정말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 딱 둘째 날 묵을 곳만 예약을 못했는데 마침 3개월 동안 빈 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민박 집에서 갑자기 비게 되었다고 방을 내주었다. 길거리에서 잘 운명은 아니었나보다.

셋째 날은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담았다는 우도로 들어갔는데, 큰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웬걸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었나 싶었다. 세계에서 두 군데 뿐이라는 에메랄드빛 산호 바다와 소가 여유롭게 낮잠을 자던 들판은 반하기에 충분했다.

마지막 날, 민박집 언니와 그 언니의 남자친구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이렇게 재밌는 조합의 4사람이 같이 한라산 등반을 했던 일도 잊지 못할 것이다. 뒷세오름에는 정말 야생노루가 살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 공부하면서 멋있는 싱글로 살고 있는 멋쟁이 언니에게 한라산에서 찍은 사진을 꼭 보내주마 약속하고 아직도 못 보냈다. 어서 보내야하는데.... 그 언니를 보면서 '나이 서른에 우리'는 그려보기도 하고 자기만의 방에서 혼자 사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제주도는 관광지이긴 하지만 인심이 무척 좋은 동네다. 말만 잘하면 민박도 짹짹 수 있고,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고 물어봐도 대답도 친절히 해준다. 여행가서 해멜 때는 쪽 팔리는 거 생각치 말고 무조건 물어봐야 한다. 어디서 내려야할지 몰라 기사아저씨 뒷자석에 꼭 붙어 앉아서 "아저씨 내려주세요" 했던 일도 그 때는 민망해도 지나면 재미난 기억이다. 그러면 다들 아가씨들이 용감하네 하면서도 잘 알려준다. 그러니 여자 친구들끼리 두려워말



고 떠나라!!

우리가 여행을 간 때는 성수기가 조금 지난 시기라 사람이 마구 붐비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연인들, 가족들이 꽤 있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가끔씩 같은 처지의 '아름다운 그녀'들을 만나 힘을 얻기도 했다. 생각 외로 여자 친구들과 오붓하게 여행을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 눈에 그녀들이 새까맣게 탄 몸으로 자전거 일주를 하던 남자 여행자들보다 더 멋지고 당당해 보였다. 여름방학, 연인과의 추억만들기보다 여자친구와 좋은 우정 만들기를 선택한 그녀들이 아름다워 보였고, 이런 '겉 없는 여자들'이 많아질수록 여자 친구들끼리 여행 다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행 가면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 가는 곳마다 찍은 사진들을 내 친구나중에 혹시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할거라고 했고, 나는 사진을 보면서 두고두고 여행의 기억을 잊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여자친구와 떠나는 여행은 늘 내게 여행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겨준다. 난 그녀와의 여행을 통해서 배짱과 용기와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다음 겨울에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그 다음에는 빠리로, 그 다음에는... 4



그녀들의 7만원 여행하기

떡볶이 수다에서는 여학우들끼리 떠나는 '7만원 여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명의 친구들, 혹은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간단한 여행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선발하여 여행경비 7만원을 제공해드립니다.

보내실 곳

thethe95@yonsei.ac.kr

혹은 학생회관 3층 320호 총여학생회실 매체국

접수기간

2002년 5월 10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지원

여행경비 7만원

다녀오신 후 간단한 여행기와 2-3장의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반성폭력

다다 (연세대 대학원 문외학 협동과정)

발을 밟는 거랑 성폭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봐, 이봐.. 당신, 너무했어. 어떻게 발을 밟는 거랑 성폭력을 그렇게 동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성폭력은 발을 밟는 것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구!

성희롱, 성추행이란 단어는 성폭력을 피해의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변 사람들에게 전철에서 만난 성폭행범, 길을 걷다가 만난 성폭행 미수범(? 밤거리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을 성폭행 미수범이라 부르기엔 나는 주저함이 없다. 그는 확실하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를 성폭행 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냐는 절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빠른 발걸음 또는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와 주변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가 나에게 늘어놓았던 음담패설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어제 내가 전철에서 변태를 만났는데...

지난번에 택시를 탔다가 큰 일 날 뻔 했더니깐...

야, 야, 나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개새끼! (이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성폭행범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오해 없기를.)를 만났다가...

성폭행,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무거운 이미지, 그 장중한 느낌, 그 압박감.

성폭행을 당했어 라는 이야기가 곧 강간을 당했어 라고 인식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성주의자가 아닌 이들에게 나 성폭행범을 만났어 라고 말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밟는 것과 성폭행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성폭행은 발을 밟히는 것만큼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만 생각해 보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친한 문방구 아저씨에게 당했던 성폭행에서부터 시작해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발을 밟히는 것보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반문할 것이다. 그렇다면 빈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가? 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성폭력은 하나의 범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아아.. 그러나 이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요즘은 생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냥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



L.Hace

나는 모든

자, 왜 생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분명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가 느끼는 그 절망감과 그 무력감과 그 좌절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분명히 성폭력은 하나의 범죄이다. 성폭력과 관계된 많은 오해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암울함은 오히려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인식한다면 성폭력 피해자를 문란한 성생활의 당사자라고 인식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며,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인식한다면 성폭력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는 오해도 사라질 것이며,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인식한다면 범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를 유도(?)했다는 의심(?)도 사라질 것이며,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인식한다면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 지금의 상황이 말 그대로 깨끗하게(!!!) 종료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한 것과 강도를 당한 것을 비교해서 성폭력이 하나의 범죄임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까? 성폭력을 당한 것과 발을 밟힌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가? 원치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는 적절하다. 그 경중에 따라 피해의 유무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적절하다.(하이힐로 밟혔건, 운동화로 밟혔건 발을 밟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강간을 당했건, 엉덩이 만질을 당했건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해자에게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필요하다면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아야만 한다는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하다. ♣

독자특고

떡볶이 수다에 하고 싶은 말,

떡볶이 수다에 실었으면 하는 글

떡볶이 수다와 같이하고 싶은 코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www.ysfem.or.kr

e-mail : cool-energy@hanmail.net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빈대로 살아온 20년 - 가사노동, 장난이 아냐

대학에 들어오면서 집에서 나와서 산지 이제 4년째이다. 그 중 1년은 기숙사 신세를 졌으니 자취를 한 것은 이제 3년차라고 할 수 있는데, 집안 살림, 가사 노동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임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집안 살림 열심히 하시기야 모든 어머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집은 식구 수가 적어서 집안이 유독 깨끗한 편이다. 할머니가 함께 사셔서 집안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지르는 사람 수보다 치우는 사람 수가 적은 우리 집은 빨래가 쌓이는 일도, 머리 카락이 굴러다니는 일도 없었다. 내 눈에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수고가 마냥 쉬워만 보였고, 집안 치우는 일이 별 거 아닌 양 착각의 늪 빠져 살았다. 자취를 시작할 때도 닭장 같은 기숙사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해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먹고 재밌게 살겠지 라는 아주 철없는 생각으로 집을 꾸렸다.

그러나! 환상이 깨지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했다. 바로 어제 빨래 한 것 같은데 어느 새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옷장, 먹은 것도 없는데 수북히 쌓인 설거지통, 아침에 쓰고 나가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먼지와 머리카락이 굴러다니는 방안 그래서 우리 집 인형들은 모두 회색 먼지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한 번 밥이라도 해먹을라치면 장보고 손질하고 음식하고 두 세 시간은

급방 가버렸고 처음에는 운동화를 빨고 나면 정말이지 3시간이 훌쩍 지나있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 일, 모두들 당연히 여겨서 일했다고 어디다 자랑할 수도 없지만 가사 노동은 정말 엄청난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화요금, 통신 요금, 카드 청구서....달마다 날아오는 청구서는 또 왜 그리도 많은지. 미처 계좌 이체를 안 시켜 몇 달이 밀려 경고장이 날아오고 전화가 끊기고 인터넷이 끊겨서야 부랴부랴 은행으로 뛰어가기를 몇 번 반복했다. 이제껏 우리 집 전화와 전기가 안 끊기고 산 것이 신기했고 우리 가족을 무/사/히 살게 해 준 어머니가 존경스러웠다. 가사 노동, 집안 살림은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와 굉장한 기억력,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이었다.

가사 노동을 월급으로 매겨 가치를 다시 생각하자 는 이야기들도 나왔었지만, 가사 노동은 결코 슬슬 놀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주부들이 집에서 쓸데 없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건 엄마가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다. 난 이제껏 '빈대'로 살아왔던 것이다. 메이데이, 여성 노동을 이야기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아무데나 옷 벗어 놓고 아침에 방도 안 치우고 나오던 빈대의 삶은 이제 청산하고 여성 노동의 문제를 자기 생활에서부터 풀어보면 좋겠다. ♣

총여학생회 부회장 김이정민 (2gal@dreamwiz.com)

이번에 파낸 떡볶이 수다의 주제는 미초이더군요.

다른 나라 책자의 맨 앞에 실린 나윤경 님이 쓴 글의 일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윤경 님이여 필자라고 칭하셨습니다이 쓰는 글에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남성 = 군인 = 미초 라는 식으로 글을 쓰시고 또한 미초라는 어휘 뒤에는 사실 나약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모습이 숨겨져있다는 의미로 어감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글에 동의합니다만, 필자가 예로써 든 "유승준의 병역복무기피"와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의 아들병역비리피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유승준의 병역복무기피라고 볼것이 아니라 마국시안권위독이 그 사건을 지칭하는데 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는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복무의 자동적 말소가 따라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분노한것은 필자가 본것처럼 단순히 군대를 안가고 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의 남성들이 배가 아파서 부러워서 그렇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군대에 관한 문제가 관련되어서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의 더 중요한 핵심은 그것보다는 유승준이 공공연히 자신은 군대를 가졌다고 공언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사회고위층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군대에 안 갈 방법을 찾아서 면제를 받습니다. 오히려 군대에 가는 경우에는 신가야다거나 장이라는 칭찬까지도 받을 지경입니다. 저는 그의 노래는 싫지만, 그의 생각과 산책때문에 인제는 장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 (제가 일일이 나열하여도 필자에게는 이미 인터넷을 보셨을테니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연예인이 나름대로 공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화가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예인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기초를잡니다.) 만약에 남아미연중현금이라 남자가 일구어안것때문에 비난하고 이것도 미초군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로서도 더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회창 대표의 아들 병역비리피문의 경우에도 필자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의 욕하는 소리를 듣고 아예 미초의 전행들이 결국 그 마귀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긴 것 같은데, 솔직히 이회창 대표의 낙선은 군대에 끌려가서 고생한 남성들의 표도 표시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과 사름에 밤잠 못주무시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포박이라는 곳에서도조차 이들 부모님들의 표는 이회창을 찍지 않는다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제가 이름 이야기 하면 아마 눈치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친의 아들'과 '여성의 자식' 쪽 돈있고 백있는 아들과 돈없고 백없는 아들과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필자는 결국 남성적이고 강인한 미초라는 이미지가 군대에서 확립되고 재단된 경제적, 사회적, 권위주의적 군사문화가 군복무자에게 체화됨으로써 재대 후의 남성들의 외피를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을 보면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것같은데,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흔히들 군대가는 것을 군대에서 썩었다고 하죠. 전 제 상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절을 군대에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그 시절을 겪었기에 여성들이 이해 못하는 군대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울분과 억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군대나 병역의 의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 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수 없는 주의로서 이해하면, 제가 여성들이 관계가 가지는 입장에 대한 두려움이 나, 당파다 찾아오는 성리의 고통 등등 이런것을 제가 겪지 않아도 되고 자랑 상관없다고 이를 사소하게거나 그냥 참아낼수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대한 여성들의 시각에 대해서 조금더 다른 시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TV에서 신청 및 지원자들이 모여서 훈련선을 향한다는 것을 촬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군인의 자녀, 모자, 장애인 등등 다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른바 군대식 생활과 훈련을 하면서 심마침을 생활하는 것을 경험한 여성들이 고된 훈련후에 군인인 자신의 아버지나 군인대하여 군인으로 있는 오해를 만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들은 막상 아버지나 오해를 만하게 되자 모두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말, 장말로 아해오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 후후..." 솔직히 군생활의 경험은 남성들에게 모두 유쾌하지 않은 경험일지는 틀림없습니다. 자신에게 전혀 생소하고,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낯선 새로운 환경에 처하여, 육체와 폭력이 난무하고 전이 인간적인 취급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생활을 거치면서 말로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강제로 끌려와서 억압과 굴종이 무엇인지, 구타와 수모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생활. 위에 며칠간의 체험을 한 여성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훈련만을 맛보고 어떻게 눈물을 흘렸지만, 그 것은 실제로 군대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비한다면, 오히려 약할 정도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자신이 파헤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체화된 미초적인 형태, 이른바 남자라면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들을 자주하면서, 이미 군대를 갔다와야지 남자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군대생활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바보같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해할수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대다수 남성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울분과 억압에 대한 토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전 예전 여자친구가 '넌 왜 군대에 가 같은 거 아니냐? 다른 남자들은 절대 하잖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군복무문제는 아마도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주제가 미초 라서 이러한 글을 쓰신것같은데, 제가 보기에 총여, 나이가 여성단체 등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좀더 전박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감정이 망국병이다 없애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 감정의 문제이지 여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나 설득을 통해서 해소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당시자들이 싫으면 싫은거지, 싫은걸 어떻게 해 리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합니까? 군대에 관련한 이러한 논의도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남성의 감정적인 부분을 잘못건드려서 생긴 소모적인 감정싸움,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성에 여성의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여성단체나 총여의 목적이라면 이보다 효과적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성과 남성의 조화롭고 평등한 공존이 목적이라면 좀더 요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여성에게만 맡겨진 책임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제가 할 문제는 아주 아주 많고 산적해있지요. 하지만 만약 군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다면 적어도 여성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뉘는 문제제기보다는 포용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글을 썼는데, 한시간 가량 쓴 글이 날라가 버려서 포기하고 그냥 간략하게 쓴다는 것이 이렇게 장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글 읽으시느라 피곤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총여에서 의견수렴에 인쇄한 편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필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국방부의 결정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사실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법무부 산하 출입관리국의 결정입니다. ###

진짜 바보예요!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 좋은 충돌!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YSFEM website. The header includ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Back', 'Forward', 'Stop', 'Refresh', 'Home', 'AutoFill', 'Print', and 'Mail'. Below the header is a search bar and a list of links: 'Live Home Page', 'Net Search', 'Apple Computer', 'Apple Support', 'Apple Product', 'Microsoft MacTopic', and 'PDF'.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 좋은 충돌!'. To the left is a sidebar with a 'Notice' section containing links like '출판의 요구사항', '회원가입의 주의사항', and '회원가입의 주의사항'. The main content area has a '기억특징' section with a list of articles, including '... 1. 1992년 10월 10일 (1992-4-11)', '... 2. 1992년 10월 10일 (1992-4-11)', '... 3. 1992년 10월 10일 (1992-4-11)', '... 4. 1992년 10월 10일 (1992-4-11)', and '... 5. 1992년 10월 10일 (1992-4-11)'. There is also a '기분 좋은 충돌!' section with a list of articles, including '... 1. 1992년 10월 10일 (1992-4-11)', '... 2. 1992년 10월 10일 (1992-4-11)', '... 3. 1992년 10월 10일 (1992-4-11)', '... 4. 1992년 10월 10일 (1992-4-11)', and '... 5. 1992년 10월 10일 (1992-4-11)'. The footer contains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 2002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 좋은 충돌! All rights reserved.' and a 'Internet zone' link.

총여학생회의 에너지 팔팔 넘치는
홈페이지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www.ysfem.or.kr

떡볶이 수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동!
제14대 총여학생회

cool-energy@hanmail.net
전화 2123-3645(구내 3645)